

#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4-20호 / 7월 29일

## 중국의 석유수급 현황과 관련 정책

### 1. 개요

-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석유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중국의 자체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 불균형 초래
- 향후 중국의 석유소비 및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크게 늘어날 전망
  - “高成長低效率”의 중국식 성장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없는 한, 석유수요는 지속적으로 상승 전망. 특히 운송업, 제조업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석유수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발전에 따른 석유소비의 증가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세계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여, 일각에서는 중국발 석유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음.
- 급속히 늘어나는 국내 석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정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펴나가고 있음

- 국내 원유자원의 개발, 수입 루트의 다변화, 대체 에너지의 개발, 해외 유전 매입정책 등 추진
- 에너지 소비효율의 제고. 에너지 부문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 절약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2. 중국의 석유수급 현황

□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석유 매장량의 1.7%에 해당하는 183억 배럴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석유 생산 규모는 세계 5위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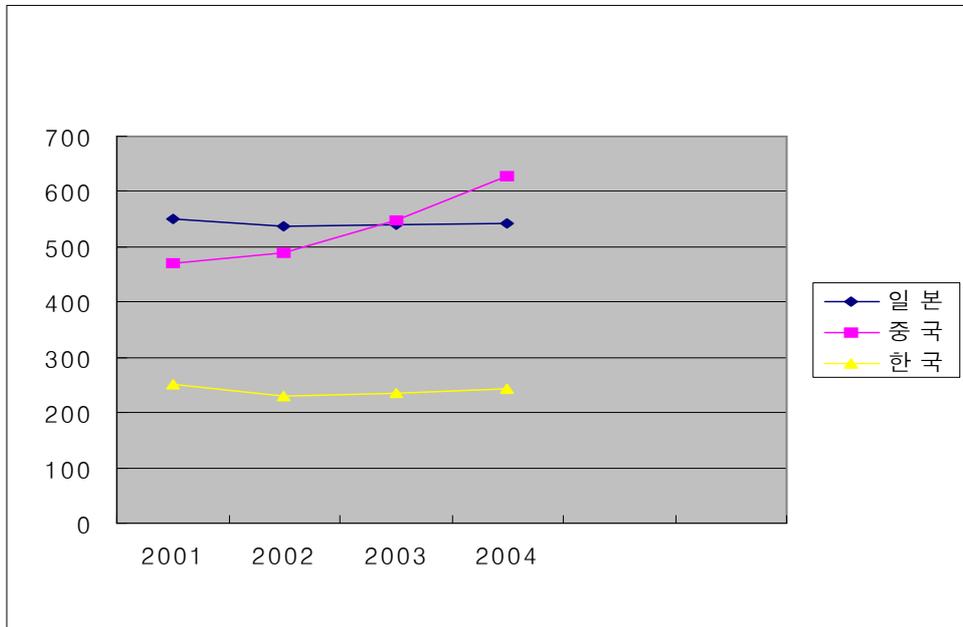
<표 1> 중국의 석유수급 추이

구 분	1978	1992	1993	1996	1998	1999	2000	2001	2002
원유 생산	2,090	2,841	2,888	3,170	3,212	3,213	3,252	3,306	3,387
석유 소비	1,705	2,662	2,913	3,672	4,047	4,416	4,985	5,030	5,362
석유 수출	152	527	408	430	371	260	348	299	372
원 유	152	424	345	364	299	151	204	136	147
제 품	0	103	63	66	72	109	144	163	225
석유 수입	0	354	683	795	985	1,153	1,768	1,798	2,040
원 유	0	155	343	674	550	737	1,408	1,209	1,393
제 품	0	199	340	121	435	416	360	589	647
석유순수입	-152	-173	275	365	614	893	1,420	1,499	1,668

단위: 천b/d, 자료: BP, World Oil trade, petronet

- 반면 석유소비는 생산량을 훨씬 초과하여 2002년에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위 석유소비국으로 부상
  - 2003년 기준, 중국의 석유소비 증가율은 전세계 증가율인 1.9%보다 대략 5배 정도 높은 11%를 기록
    - 특히, 금년 1분기 세계 일일 석유소비 증가량 200만 배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만 배럴이 중국의 소비 증가에 의한 것임

<그림 1> 일본, 중국, 한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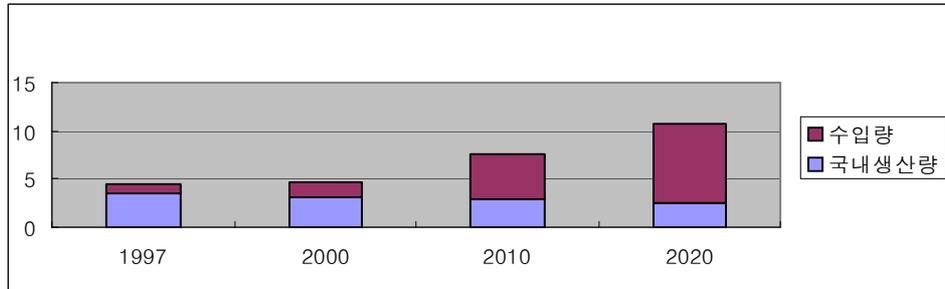
단위: 백만배럴. 자료: IEA

#### □ 석유 수입의 급속한 증가

- 90년대 이후 중국은 연평균 9.7%성장 기록, 석유 소비량은 연평균 5.77% 증가. 그러나 동기간 국내 석유공급 증가율은 1.67%에 그침. 이러한 석유수급의 모순은 1993년 석유순수입국, 1996년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략 후 수입규모가 매년 커짐에 따라 생김.
- 석유 수입량이 1993년 1,000만 톤, 1995년 1,095만 톤, 1997년 3,600만톤, 1999년 4,890만 톤, 2001년 7,380만으로 톤으로 크게 증가.
- 작년 중국의 석유 수입의존도는 40%, 금년은 50% 초과할 것으로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하루 석유수입량은 지금의 두 배에 달하는 400만 톤, 2030년에는 1,000만 톤이 될 것이

며,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비슷한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그림 2> 중국의 석유수급 현황



단위: 백 만톤/일. 자료: IEA

### 3. 중국 석유수급의 문제점

□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내 석유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국내 유전은 대대적인 증산이 불가능한 상태

- 석유수급의 90%를 차지했던 동북지역의 대형 유전 노령화

○ 동북부의 대경(大慶), 승리(勝利), 요하(遼河) 등 3대 유전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약70%를 차지했으나, 장기채굴로 자원이 고갈되어감에 따라 90년대 초부터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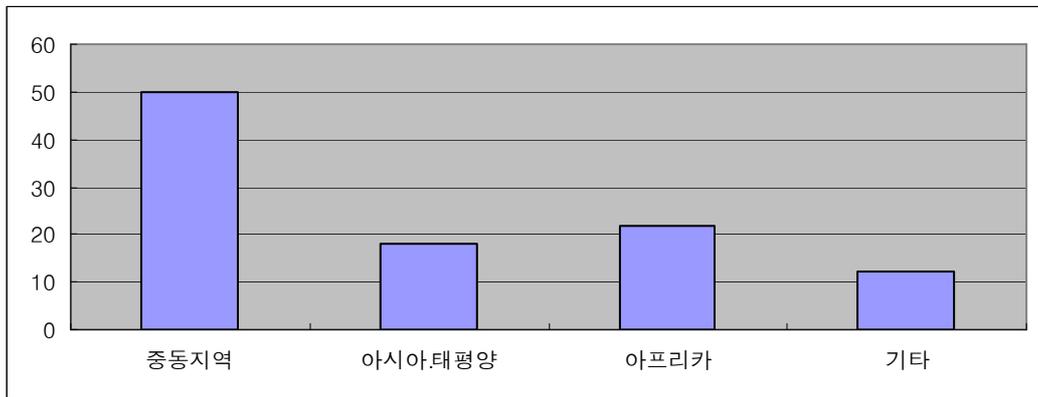
- 해저유전의 개발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불과하며, 향후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내포

- 서부지역의 정갈 분지, 타림 분지, 콰이담 분지, 오르도스 분지 등 동부 지역을 대신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있으나 지리적인 불리함과,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며 물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아직까지 투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 있음.

□ 수입원유의 절반가량을 중동에 의존

- 2000년 34.9%에서 2003년 51%(약 4,600만톤)로 증가. 이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공급국임. EIA 추정에 따르면 2010년에는 71.6%로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3> 중국의 지역별 원유 수입 비율 (2002년)



단위: 천만 배럴/일, 자료: IEA, PI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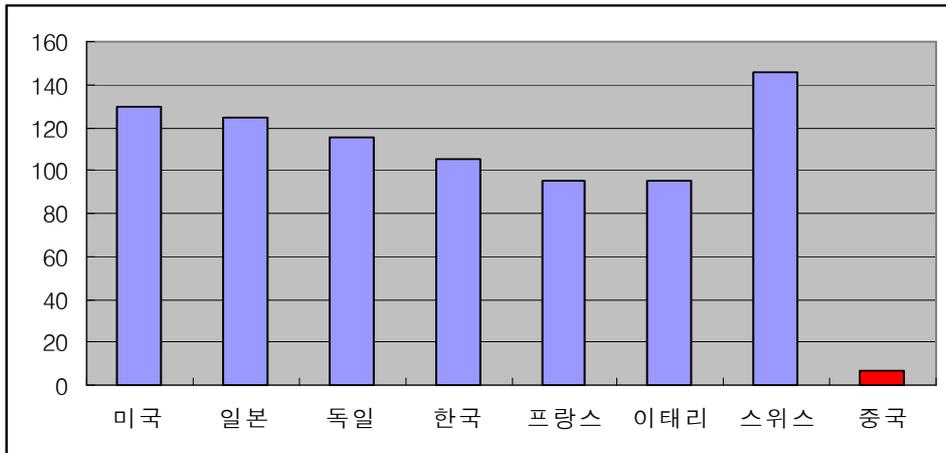
- 중국은 과거 석유위기를 겪어 보지 않음에 따라 만일 3차 석유위기가 발생시 공황에 빠질 가능성도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음.

#### 4. 중국의 석유수급 정책

- 급증하는 석유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내외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내정책으로 국내자원의 개발,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석유비축 제도 도입, 외국의 기술과 투자 유치, 석유교역의 확실한 기반수립에 중점
  - 국내 자원의 장기 에너지 개발계획

- “동부지역은 안정적 공급, 서부지역은 개발” 정책
  - 중국 해양 유전의 탐사개발 강화
- 천연가스(LNG)도입 추진 계획: 중국 광둥성에 첫 LNG 수입기지 건설
-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총 50억원 위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LNG 기지 프로젝트는 연간 3백만 톤의 처리능력을 지닌 저유탱크 기지와 전체길이 215km의 파이프 라인을 건설 계획
  -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영국의 BP사 등이 수입기지 운영에 참여
- 석유의 전략적 비축: 고유가로 인해 중국의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비축 결정 (2003년 3월 발표)
- 정부(지분 70%)는 2010년까지 CNPC 등 국영석유사들(지분 30%)과 공동으로 50억 위안(약700억)을 들여 다롄(大連)등 네 곳에 저장 용량 총1억 배럴의 비축 시설 건설 계획
  - 2005년 말까지 5,000만 배럴의 원유를 우선 비축(정부14일, 민간 21일 총 35일)하고, 2010년까지 1억 5,000만 배럴의 원유(50일분)를 비축할 계획

<그림 4> 주요 소비국 비축 일수



단위: 천 배럴/일. 자료: IEA

□ 해외유전 개발. 적극적으로 해외유전을 매입하고, 여러 국가와 에너지 공동개발에 박차

- 아프리카와 태평양 연안지역의 자원 부국을 집중적으로 공략

○ 금년 초 중국 제2의 석유회사인 SINOPEC이 가봉에 700만 달러의 금융 지원 대가로 프랑스 토탈가봉으로부터 원유 공급을 약속 받음

○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과 공동으로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

○ 2002년 아제르바이잔의 유전 2개를 次點價格보다 40%나 높은 5200만 달러에 매입

○ 30여 개국과 FTA 체결 추진 등, 원자재 및 석유확보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세계 최대산유국으로 떠오르는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공략

-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유는 전체 수입량의 4% 정도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03년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원유는 전년 동기대비 73%증가하여 525만톤 기록
  - 러시아로부터 대경유전을 연결하는 송유관 건설이 난항을 거듭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가 일본쪽을 향해 동해 방향으로 송유관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카자크스탄과 송유관 건설 협정을 체결
  - 카자크스탄과 중국 신장을 연결하는 송유관은 러시아-대경유전 송유관 건설에 비하면 거리도 멀고 송유관을 건설하기 위한 천연조건도 열악한 상태이지만 러시아로부터 원유수입의 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중-러관계는 가라앉고 대신에 중-카자크스탄 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음.
- 향후 중국은 전략적인 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석유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 (\*\*\*)